

# 농민복지에 대한 선교신학적 이해

김은수(교수, 전주대학교, 한국선교아카데미 원장)

## 1. 시작하는 말

한국교회는 1990년대 이후 양적인 성장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교회가 한국의 근대화에 대한 실질적인 수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적된 재원을 사회에 환원하거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데 인색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회의 침체 현상의 가장 큰 피해자는 농촌교회다. 한국에 고도의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대도시교회들의 급성장이 시작되었고, 이들은 물질적 부와 연결된 축복의 전당이기를 자처하였으나 이 때에도 농촌교회는 이농현상으로 교인들이 계속 감소했고, 농민들은 산업화를 위한 싼 임금의 노동자로 전락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정보화 시대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 소위 디지털 하이테크로 대표되는 정보화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자들은 실업자가 되거나 단순한 보조자로 전락되고 있다. 소위 80:20의 구성비율로 대표되는 가난한 자와 부자의 격차와 상대적 빈곤이 심화됨으로써 새로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가능한 책임을 최소화하고 그 대신 가족과 기업, 지역사회, 종교 등 민간부문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회복지체계의 틀을 마련하여 왔다. 이러한 정부의 방안은 폭증하는 국민의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역부족이며, 민간부문에서는 IMF사태 이후 고실업과 실질임금의 감소 등으로 가족과 기업의 복지공급 능력이 급격히 약화됨으로써 기독교의 사회복지 기능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편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을 뿐 아니라 복지정책에서도 가장 취약한 농민에 대한 복지를 선교의 과제로 삼고 이에 관한 신학적 이해를 마련하는 일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교회의 본질은 선교이며, 그 선교는 지역사회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을 떠난 선교란 존재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농촌교회는 물론 농촌을 선교과제로 삼고 있는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농촌지역사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한다. 지역주민과 상관없는 교회는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릴 수 없으며, 그에 대한 봉사 역시 단순한 동정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교회는 복음을 말로써만 선포할(verbally proclaim)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전할 때가 온 것이다. 복음전도는 사회적 책임과 언제나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고백 없는 사회적 봉사는 휴머니즘적인 활동에 불과하고, 형제를 외면하는 삶은 하나님 앞에서 위선자일 뿐이기 때문이다. (마태 5:23-24) 이러한 통전적 선교는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삶에 기초한다. 그는 강도 만난 자의 시각에서 보라고 가르쳤을 뿐 아니라 또한 그렇게 행하라고 하였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누가 10:37) 그리고 그는 봉사의 삶에 대한 본을 직접 보여 주었다. 겹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담아 허리를 굽혀 제자들의 발을 씻기었다. 이것은 종의 행위으로써 무엇이 진정한 봉사인가를 잘 보여준다.

봉사에 대한 신약성서의 헬라어 ‘디아코니아’(diakonia)는 ‘식탁에서 시중을 들다’ 또는 ‘식사를 관장하다’(눅10:40, 행 6:1); ‘섬김을 수행하다’(고전16:15, 계2:19, 엡4:11 이하,

고전12:4 이하); ‘공동체 내에서 어떤 특정한 임무를 수행하다’ (롬11:13, 고전4:11, 6:3-4); ‘헌금을 드리다’ (고후8:19) 등으로 사용된다.<sup>1)</sup> 즉 디아코니아는 종의 자리에서 이웃을 위해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것을 말한다.

예수가 몸으로 섬기며 가르치고 선포한 ‘하나님 나라’가 참으로 기쁜 소식(good News)이 되고 복음(Gospel)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가 보여주신 종의 모습으로 전파되어야 한다. 말씀과 행위가 연결되고 입으로 전해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야 한다. 이제 한국에는 예수에 대해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소문으로만 들었을 뿐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제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성경의 디아코니아이며, 오늘날의 사회복지선교다.

기독교 사회복지는 일반 사회복지와 공유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으나 그 목적에서 차원을 달리한다. 일반 사회복지의 인간의 행복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기독교 사회복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그 목적이 있다. 즉 일반 사회복지는 “사회의 현실 속에서 인간이 비인간적인 상황에 처하는 것을 예방하거나 사후적으로 극복해내기 위한 집합적 노력”<sup>2)</sup>을 뜻하지만, 기독교 사회복지는 그 목적이 ‘하나님 나라’로써 영적인 차원을 내포한다.<sup>3)</sup> 농민복지를 포함한 모든 기독교 사회복지는

---

1) G. Kittel (ed.),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Vol. II. Grand Rapids: Michigan Eerdmans Publishing Co., 1974, pp. 81-93

2) 윤찬영,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이론과 실천』, 전주대학교 출판부 2000년(2판) 141.

3) 김은수, “기독교 사회복지의 신학적 패러다임”, 『신학사상』 2001년 봄호(통권 112호), 163-182. 이 논문은 한국선교신학회 2001년 제2차 학술대회(4월)에서 발표된 것으로써 기독교 사회복지의 신학적 틀을 제시하고 있다. 즉 기본이념을 ‘하나님의 형상’(Imago Dei), 신학적 근거를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 실

인간의 신체적이고 경제적인 필요를 채우는데 집중하는 일반 복지와는 달리 인간의 정신을 포함하는 전인적이고 포괄적인 봉사를 의미할 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구원까지도 포함하는 하나님 나라를 그 목표로 한다(로마서 8장). 따라서 농민복지의 목표로써 하나님 나라를 선교신학적 차원에서 살펴보고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 2. 농민복지와 선교

농민복지가 오늘날 중요한 선교로 부각되게 된 신학적 근거는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다.<sup>4)</sup> 하나님의 선교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모든 것을 그가 보내신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이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는 자기 활동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교에서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기 활동에 상응하는 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이 하나님의 자기활동에 참여하는 한, 그 직무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농민복지는 교회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활동에 상응하도록 하는데 관련되어 있으며, 교회의 내적 본질을 하나님의 자기활동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존재의 내적 본질에 상응하도록 하는 다리(bridge)로서의 존재의 의미와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말로만이 아닌 봉사적 삶을 통한 농민복지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며, 와서 모이는 것만이 아니라 성문 밖에서 죽으셨던 '성문 밖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처럼 주변부(周邊部)를 향해 고난의 현장으로 나아가 그들의 삶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수의 현장화는 섬기는

---

천적 근거를 '하나님의 디아코니아'(Diakonia Dei) 그리고 그 목표를 '하나님의 나라'(Regnum Dei)로 설명하고 있다.

4)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자세한 이해는 김은수, 『현대선교의 흐름과 주제』, 대한기독교서회 2001년, pp. 118-142을 참조하라.

자로서 자기 중심이 아니라 타자 중심으로써 언제나 지역사회와 ‘함께’(with), 지역사회를 ‘위하여’(for) 일할 때 성취된다. 따라서 교회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알아차리고 그의 활동에 동참하는 자들로서 항상 예민한 순발력을 가지고 반응하는 공동체 (responding community)가 되어야 한다.

교회는 사람들의 각종 사회적 욕구를 모두 충족시켜주는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지만, 이 사회의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 뒤지지 않는 중요한 사회복지적 자원임에 틀림이 없다. 특히 기독교신앙을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나 사회복지사들은 교회의 자원을 잘 활용함으로써 개인 혹은 지역사회의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 할 수 있다. 목회자들은 사회복지적 기본 지식을 갖추고 지역사회내의 사회복지기관과 연계할 때 교회의 사회적 역할을 보다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다.<sup>5)</sup>

한 사회의 복지 수준은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복지와 민간복지의 합(합)으로 결정된다. 한국의 경우 정부의 사회복지를 위한 예산의 확대가 시급히 요청되는 한편, 민간부분에 있어서 각 교회가 예산의 10%만 사회복지를 위해 투자하더라도 소외 계층들의 복지 향상에 상당히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sup>6)</sup> 또한 교회의 많은 인적자원이 자원봉사자로 나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선진국 국민들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20%수준에 이르는데 반해서 우리 나라는 4% 수준에 불과하다. 교회는 신앙을 바탕으로 이웃사랑의 실천의지와 재능을 가진 자가 많

---

5) 해남지역의 젊은 목회자들이 농촌교회의 사회복지선교를 위해 두레박선교회를 조직하고 지역사회내의 보육, 부랑자 수용, 정신 질환수용, 장애인 및 무의탁 수용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을 돌아보고 공동협력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선교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회보」 2001년 6월호 참조

6) 1990년대 말을 기준으로 한국의 58,000여 교회의 재정 규모가 3조 5천억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 가운데 10%를 사회복지에 투자하면 3천5백 억의 규모가 된다. 기독교가 전체 종교인구의 과반수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소외계층을 위해 상당히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수준이다.

기 때문에 그들을 봉사의 현장에 참여하도록 도와야 한다.<sup>7)</sup> 사회복지를 실천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모르는 봉사지원자들을 위한 세미나와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기독교사회복지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과 연결시켜줄 수 있는 정보망의 구축이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주말에만 주로 이용되는 교회의 많은 시설들을 주중에 지역사회 주민들의 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을 위해 개방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교회는 지역 곳곳에 산재해 있는 엄청난 조직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할 수 있는 최 일선 조직이며, 지역사회복지의 최 적지이다. 농촌지역의 교회라고 할지라도 교회의 시설을 이용하여 노래, 한글, 건강체조, 컴퓨터 교실 등을 개설할 수 있으며, 농촌교회 스스로 할 수 있는 사회복지선교로는 가정 심방을 통한 상담선교(특히 노인들), 재가봉사(환경정리, 수리, 목욕, 민원대행 등) 그리고 농산물 직거래를 통한 경제적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sup>8)</sup>

많은 자원을 가진 교회가 사회복지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달체계가 조직화, 체계화될 필요가 있다. 교회는 사회복지를 전담하는 상설 기구를 만들어 사회복지의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방향성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이것을 개 교회가 실천하기 어려울 때에는 각 교단의 신학대학이나 지역 대학의 신학과 및 사회복지학과와의 협력이나 공동작업을 통해 과학적인 연구와 사례조사를 통해 사회복지의 실천모형을

7) 미국교회의 경우 70% 이상이 적어도 1주일에 1시간이상 교회 밖에서의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교회에 현금과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사람들이 사회복지에도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8) 농촌지역에서의 구체적인 사회봉사에 대한 체험과 증언은 이삼열 엮음, 『사회봉사의 현장에서』, 도서출판 한울 1993, pp. 11-84 참조하라.

함께 개발할 수도 있다. 이러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농촌지역의 교회라고 할지라도 가까운 교회들과 공동으로 상조회 조직(장례 등), 지역상담실, 의료 및 법률 서비스 등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도시교회와의 협력을 통해서는 보다 효과적인 사회복지선교를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도시와 농촌교회의 공동목회를 들 수 있다. 해외에 선교사를 파송하듯이 농촌에 전임목회자를 파송하는 것이다. 현재의 월 십만원씩 보조하는 관계는 바람직한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sup>9)</sup> 도시와 농촌교회의 일대일 대등한 연계관계를 통해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확인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 가운데 농산물 직거래는 이미 많은 교회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농촌체험(시골길 걷기, 갯벌체험, 해넘이보기, 농민체험 등)을 하는 도시청소년을 위한 수련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거나 농촌청소년을 위한 공동수련회(상담, 영어 캠프 등)를 가질 수 있다. 또한 도시 목회자와 농촌 목회자가 서로 교환하여 사경회를 개최함으로써 깊은 이해와 구체적인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농촌 학생을 위한 장학숙사를 도시에 건립함으로써 농민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거나 도시로 나간 사람들과 자녀들의 고향 찾기 운동을 통해 자신을 자라게 해준 고향, 이웃 그리고 교회의 고마움을 깨닫고 지속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 내의 교회간 혹은 전문 사회복지기관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급 주체가 다양화되면서 각 민간 주체들간의 역할 갈등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지역 단위별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조정하고 통제할

---

9) 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월 10만원 정도의 보조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보는 사람은 14.3%,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사람이 74.3%로 개선행야만 한다고 본다. 그 이유로는 보조의 지속성, 구걸하고 시혜하는 형태, 인맥 여하에 따른 형평성, 자괴감 등을 들고 있다. 한경호, “농촌교회 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 「농촌과목회」 1999년 3월(창간호) pp. 185-198.

수 있는 협의체의 구성이 시급하다. 즉 사회복지기관과 교회,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민간 사회복지부문의 협의·조정기구인 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여 여러 형태의 복지사업의 네트워크가 형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각 단체간의 조정과 협력은 물론 구체적인 정보 및 자료의 교환이 가능함으로써 서비스 중복이나 단절을 피할 수 있고 사회복지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sup>10)</sup>

### 3. 농민복지와 하나님 나라

농민복지는 모든 구원받은 피조물 위에 그리스도의 주권을 세우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으로써 수직적인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주권 확립과 수평적인 차원에서 교회의 사회에 대한 나눔의 영역이 서로 만나는 통전적 선교다. 그러므로 그 목표는 교회의 확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며, 교회의 영광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아들을 통한 아버지의 영광이다. 하나님 나라는 오늘날 농민복지를 비롯한 사회복지를 통해 확장될 수 있으며, 인간의 모든 결핍이 채워지는 구원의 실천으로써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지배와 현재적 통치를 의미한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로부터 이미 시작되었다. 그는 ‘때가 왔으며’ 그리고 ‘오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선언하였다. (막 1:15; 눅4:21) 이처럼 예수가 하나님 나라를 가져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현존은 예수의 인격과 불가 분리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예수의 사역 안에서 ‘이미’(already) 획득된 하

---

10) 전북기독교사회복지연구소는 전주지역의 모든 사회복지기관과 전주시의 671개 교회 가운데 사회복지프로그램을 하는 모든 교회들의 실태를 조사하여 이를 서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집을 만들었으며, 이를 토대로 모든 기독교 관련 복지단체가 참여하여 지역사회에서 교회의 존재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북기독교사회복지연대를 2000년에 결성하였다. 전북기독교사회복지연구소 편, 월간 「복지세상」 참조.



나눔 나라의 역사적 차원은 하나님의 선교가 무시간적인 사변(a timeless speculation)에 빠지지 않게 하는 주요한 근거를 제공한다.<sup>11)</sup> 예수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였고 그들을 치유하였으며 그들이 더 이상 마귀의 권세가 아닌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머물게 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리었다. 그러므로 그의 사역을 우리가 정확히 깨닫고 그의 뒤를 따른다면 이미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그의 나라를 맛보고 선취하는 것이다.<sup>12)</sup> 농민복지는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뒤따름(Nachfolge)의 실천이며, 이로 통해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나라의 완성은 하나님의 선물로 도래하는 나라이다. 즉 하나님 나라는 현존하는 실체인 동시에 미래에 성취될 하나의 약속이다. 따라서 그의 나라는 다시 올 것이며 현재인 동시에 미래이기 때문에 종말론적인 긴장이 발생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는 순전히 현재적이거나 순전히 미래적으로만 이해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의 완성된 것으로나 아직 시작도 되지 않은 종말로써가 아니라 하나의 시작된 그럼에도 아직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다.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Basileia tou Theou)’에 대해 몰트만은 ‘하나님의 통치’(Gottes Herrschaft)와 ‘하나님의 왕국’(Gottes Reich)이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번역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 긴장을 변증법적으로 설명하고

---

11) Wilhelm Andersen, "Further Toward a Theology of Mission", in: G. Andersen(ed.), *The Theology of the Christian Mission*, London 1961, p. 303 이하 참조.

12) 몰트만은 봉사에 관한 2번째 원칙에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인식을 말하고 있다: “만일 우리가 예수의 파송을 인식하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들이 영향을 받는다면, 즉 우리가 자유의 소명을 듣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고 이로써 하나님의 미래가 우리에게서 시작된다면, 우리는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할 수 있다.” J. Moltmann, *Diakonie im Horizont des Reiches Gottes*, Neukirchener 1989(2. Aufl.), S. 19-41

있다. 즉 “하나님의 통치는 그의 나라의 현재이고, 하나님의 왕국은 그의 통치의 미래이다”<sup>13)</sup>.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schon)와 ‘아직 아닌’(noch nicht)의 긴장관계 속에 존재하며, 현재적이면서도 미래적인 종말사이에 놓여있다. 따라서 농민복지의 선교는 ‘이미’ 그리스도안에서 시작되었으나 ‘아직’ 도래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희망 안에서 실천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농민복지는 단지 궁핍을 줄이고 상처를 싸매어 주며 부족함을 채워주는 이념 없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희망 안에서 새로운 삶, 새로운 공동체 그리고 자유로운 세상을 미리 맛보는 선취(Antizipation)를 지향한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이 없는 농민복지는 신학적 근거를 상실한 인간들의 사회적인 보상과 개선활동에 지나지 않는 휴머니즘적인 봉사활동으로 전락하게 되며, 농민복지의 실천(praxis)이 없는 농촌지역 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희망은 요구와 비판만 하는 공허한 유토피아에 지나지 않게 된다.<sup>14)</sup> 즉 기독교 농민복지의 실천은 하나님 나라의 희망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그 나라를 점점 더 확장하며 근접해 가려는 지속적인 노력이다.

이러한 노력은 그리스도를 뒤따름으로써 확장되어 간다. 이 뒤따름은 오늘날 우리를 가장 필요로 하는 이웃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인식하는 데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예수는 그 당시 그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아갔으며 그들이 바라던 친구, 의사 그리고 이웃이 되었기 때문이다. 몰트만은 하나님 나라의 지평에서 보는 사회복지의 첫 번째 원칙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따르는 봉사로 보았다. 즉 예수를 따르는 섬김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의 지평에서 실천하는 봉사다.<sup>15)</sup>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은 우리를 섬김으로

13) J. Moltmann, *Der Weg Jesu Christi - Christologie in messianischen Dimensionen*, München 1989, p. 118.

14) J. Moltmann, *Diakonie*, S. 20

15) *Ibid.*, S. 19 f.

인도하며, 세상 속에서 이웃과 함께 나누고 섬기는 봉사는 하나님 나라를 희망하도록 이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섬김의 삶으로 실천되는 기독교 농민복지는 필연적으로 포괄적이며 통전적인 선교가 되어야 한다. 즉 구원과 복지,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유한한 것과 영원한 것을 구분하려는 사고는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이다. 영적인 구원과 육적인 구원이란 이분법적인 사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을 분리하며, 고립시키고 추상화시킨다. 따라서 기독교 농민복지는 인간의 영적이고 육체적인 고통과 결핍을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것이어야 한다. 이로 통해 하나님의 교회는 모든 삶의 자리(Sitz im Leben)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모든 창조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이며 동시에 '지금 여기'(here and now) 그리고 '시간사이'(between the time)에서 교회가 가지는 역사적 사명이다. 따라서 이 역사 속의 교회는 오직 하나님 나라의 빛 안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약성서는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즉 그리스도를 통하여 역사 안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메시아적 공동체로 나타내고 있다. (마 16:15-18)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이지만 결코 하나님 나라 그 자체는 아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 나라의 빛 안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이 지상에서의 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참된 가치를 드러내야 한다. 따라서 농촌지역교회의 선교적 과제는 성령의 도움 안에서 농민복지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보이는 표시가 되는 것과 인간다운 세상을 보여주는 새로운 희망의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이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며 섬김으로써 세상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증거 하는 것이다. 교회 공동체의 참된 모습에 대해 본회퍼(Dietrich Bonhoeffer)는 그의

『옥중서신』에서 “교회는 이웃을 위해 존재할 때만이 진정으로 교회라 부를 수 있다. 성직자는 일반 세속 인간들의 삶의 문제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되, 지배적 성격이 아니라 돕고 섬기는 자세로 적극 참여해야 한다”<sup>16)</sup>고 말했다. 즉 교회는 종(servant)으로서 세계와 이웃을 위해 존재해야 하며, 그리스도가 타자를 위해 살았듯이 교회도 가난한 이웃을 위해 살아야 한다.

예수는 하나님 나라가 가난한 자들의 것이라고 하였다. (누가 6:20). 그러나 가난은 결코 그 자체가 목적일 수 없고, 더구나 높은 덕목도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의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이 세계의 가난한 자들과 함께 온전히 연대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바로 이 같은 정신을 뒷받침해준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 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가난하심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고후 8:9).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얻어서 풍성함을 얻게 하려고 왔다”(요한 10:10).

이것은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최후의 심판 비유(마태 25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자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자들의 판단 기준은 바로 다름이 아닌 가난한 자들에게 베푼 긍휼의 복지선교! 였다. 예수는 이 비유에서 자신을 가난하며 힘없고 고난받는 자들과 동일시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의 복지선교에 대한 중요하고도 강한 동기(Motive)를 제공하고 있다.

특별히 한국교회의 선교가 오늘날 침체되고 있는 가장 주된 요인은 그리스도처럼 가난한 자들과 나누지 못하고 동일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가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린 것은(히브리서 13:12), 우리도 그의 뒤를 따라 사회의 바깥 변두리에 있는 가난한 자들과 함께 있어야만 함을 가르쳐 주고 있다. 더

---

16) D. Bonhoeffer (E. Bethge Hrg.), *Widerstand und Ergebung, Briefe und Aufzeichnungen aus der Haft*, München 1985 (13. Aufl.), S. 190-193

구나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면 농촌지역 교회의 일차적 과제는 우선적으로 가난한 농민들과 함께 그들을 위한 복지를 통한 선교의 실천일 것이다.

#### 4. 끝맺는 말

농민복지는 인간의 고통을 완화시켜주고 상처를 치유해야 하는 인간의 실존에 기초하는 것일 뿐 아니라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에 기인한다. 그러므로 기독교 농민복지는 부족함을 채우고 보상해주는 이상 없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근거한 사랑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없는 농민복지는 기독교적 정체성을 상실하며, 사회복지의 실천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구호는 공허한 메이리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이 땅의 모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빛에 비추어 자신의 존재와 역할을 확인하고 이 땅에서의 선교적 사명을 바르게 인식하여야 한다.

교회는 세상을 섬기는 ‘종으로서의 교회’(The Servant Church) 모습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선교를 실천하는 공동체다. 교회는 세계를 위한 존재이며, 하나님과의 올바른 수직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는 이 땅의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는 수평적 관계를 통해 드러나게 된다.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는 오늘 여기 그의 메시아적 소명과 함께 역사 속에서 시작되었다(누가 4:18-19). 이 세상은 선교의 현장이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장소다.<sup>17)</sup> 따라서 교회는 그의 인격과 사역 안에서

---

17)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피체돔의 말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복음은 민족들의 삶의 공간과 교회의 선포 영역인 온 세상(Ökumene)에 선포되어야 한다. 따라서 온 세상과 우주(Kosmos)는 하나님 나라(Basileia)의 상관개념이 되며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와 사도직(Apostolats)의 대상이 된다”. G. F. Vicedom, *Missio Dei*, Chr. Kaiser Verlag Muenchen 1958, p. 77.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 세계에 선포하고 확장할 사명을 부여받았다. 특히 한국교회는 그 뿌리였던 농촌을 살리기 위해 농민복지를 통해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왜냐하면 농민복지선교는 새 천년 대에 더욱 심화될 빈부의 격차와 환경파괴, 급격히 해체되고 있는 농촌의 기반과 터전을 구체적으로 되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선교현장들, 특히 불의와 가난 속에서 허덕이는 제 3세계의 선교현장에서 반드시 실천되어야 할 선교사역이며 새 천년의 가장 적절한 선교이다. 여기에 21세기 한국교회의 희망이 있지 않겠는가!

## 정기구독료를 납부해 주십시오

독자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하시는 사역 위에 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부탁드릴 말씀은 정기구독료 납부에 관한 일입니다. 정기구독 신청하신 지 1년이 지난 분들은 다시 구독료를 납부하셔야 계속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책 뒷면에 있는 계좌로 온라인으로 보내 시거나 지로용지를 보내드리오니 납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